

지속가능 성장을 위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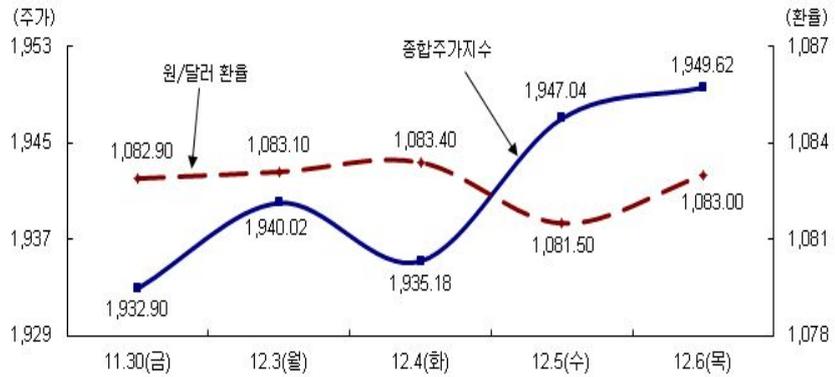
# 경제주평

*Weekly Economic Review*

- 금융위기 이후 산업별 일자리 창출력 변화  
- 제조업과 정보통신업이 성장·고용 주도

Better than  
the Best!

주간 주요 경제 지표 (11.30~12.6)



차 례

주요 경제 현안	1
□ 금융위기 이후 산업별 일자리 창출력 변화	1
주요 국내외 경제지표	16

□ 본 자료는 CEO들을 위해 작성한 주간별 경제 경영 주요 현안에 대한 설명 자료입니다.  
□ 본 보고서에 있는 내용을 인용 또는 전재하시기 위해서는 본 연구원의 허락을 얻어야 하며, 보고서 내용에 대한 문의는 아래와 같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괄 : 유 병 규 경제연구본부장 (2072-6210, bkyoo@hri.co.kr)  
□ 작성 : 김 천 구 선임 연구원 (2072-6211, ck1009@hri.co.kr)

## Executive Summary

### □ 금융위기 이후 산업별 일자리 창출력 변화

#### ■ 국내 고용 부진 심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내 청년층 취업자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고용률도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또한 비정규직, 파트타임이 늘며 불완전 취업이 증가하고 고용의 불안정성이 확대되었다. 이에 따라 양질의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고 고용률을 높이는 것이 주요한 정책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은 산업 발전을 통해 이루어진다. 본 보고서에서는 금융위기를 전후하여 산업별로 성장과 일자리 창출 간의 관계를 고려하여 주요 산업의 일자리 창출 능력을 분석하였다.

#### ■ 산업별 성장과 일자리 창출

(정의) 산업별 성장률과 취업자 증감률을 기준으로 4가지 산업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① 성장과 고용이 평균 이상이면 '동반성장형' ② 성장은 평균 이상이나 고용이 평균 이하면 '성장위주형' ③ 성장은 평균 이하지만 고용이 평균 이상이면 '일자리위주형' ④ 성장과 고용이 평균 이하면 '동반하락형'으로 정의하였다.

(분석 개관)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를 비교할 때, 가장 이상적 유형인 동반성장형은 5개에서 4개로 감소한 반면 동반하락형은 3개에서 7개로 급증하였다. 성장위주형은 2개에서 1개로, 일자리위주형은 5개에서 3개로 줄어들었다. 동반성장형은 제조업, 정보통신업, 보건복지업, 운수보관업이고, 동반하락형은 부동산임대업, 교육서비스업, 건설업, 전기가스수도, 문화오락, 농림어업, 광업이다. 성장위주형은 도소매숙박업, 일자리위주형은 금융보험업, 공공행정, 사업서비스업이다.

(동반성장형)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산업성장 and 일자리 창출을 주도한 업종은 제조업과 정보통신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두 산업은 금융위기 이전 성장위주형에서 이후에는 동반성장형으로 상향 이동하였다. 제조업은 금융위기 영향에서 벗어나 자동차, 화학, 석유정제, 전자 산업 등의 수출 호조로 생산과 고용이 크게 개선되었다. 정보통신업은 스마트기기 등 신기술의 확산, 인터넷의 빠른 성장 등으로 일자리 창출력이 개선되었다. 보건복지업은 동반성장형 산업에 지속적으로 위치하였다. 보건복지업은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확대, 정부의 육아 보육 지원 확대, 고령화 사회의 진전 등으로 전산업 중 고용이 가장 빠르게 증가하였다.

(성장위주형) 도소매숙박업은 동반하락형에서 성장위주형으로 상향 이동하였다. 재래시장 등 소규모 상점들이 줄어들며 고용 감소세가 지속되었으나, 업종의 대형화 새로운 사업 출현 등으로 성장성은 증가하였다.

(일자리위주형) 금융보험업은 동반성장형에서 일자리위주형으로 하향 이동하였다. 은행업은 금리 하락으로 순이자마진(NIM)이 감소하고 총대출 성장세가 둔화되어 수익기반이 약화되었다. 증권업 역시 주식 거래 규모 감소 등으로 수익성이 저하되었다. 공공행정과 사업서비스업은 일자리위주형에 지속적으로 위치하였다. 공공행정은 금융위기 이후 정부의 희망 근로 사업 추진으로 취업자가 크게 증가하였다. 하지만 희망 근로 사업으로 생긴 일자리가 대부분 저임금, 단순 업무에 집중되어 산업의 성장세로 연결되지 못하였다. 사업서비스업은 제조업 발달과 낮은 진입장벽 등으로 취업자가 꾸준히 증가하였지만, 고용이 청소, 용역 등 저임금 부문에 분포하여 성장률 증가는 미흡하였다.

(동반하락형) 부동산임대업과 교육서비스업은 일자리위주형에서 동반하락형으로 추락하였다. 부동산임대업은 금융위기 이후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 경기가 위축되어 부동산업의 생산성이 저하되고 취업자 증감률도 하락하였다. 교육서비스업은 금융위기 이후 정부의 사교육 억제 정책과 가구의 실질소득 감소 등으로 성장률과 고용 창출력이 하락 하였다. 건설업은 동반하락형에 지속적으로 위치하였다. 금융위기 이후 정부의 SOC 예산축소로 인한 토목부문 부진과 건축 부문 침체 장기화로 건설업의 성장률이 크게 감소하고 고용 창출력이 약화되었다.

## ■ 정책적 시사점

첫째, 제조업과 정보통신업 부문의 일자리 창출 역량과 성장 지속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제조업과 정보통신업 분야의 창업지원 확대, 성장 잠재력을 보유한 기업의 발굴과 육성, 신산업 분야의 창업촉진 지원 등에 주력해야 한다. 둘째, 사업서비스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추진해야 한다. 일자리가 늘고 있는 저부가 종사자들에게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대형화, 고도화를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셋째, 건설업, 부동산임대업 등의 성장 활력을 마련해야 한다. 건설 경기 회복을 위해 에너지 절약형 및 친환경 기술개발, 해외시장 개척 등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넷째, 도소매숙박업의 일자리 창출 능력을 제고해야 한다. 도소매숙박업 중 전업희망 인력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해당분야의 기술습득 및 역량 제고를 위한 실질적인 재교육훈련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기술경쟁력을 보유한 자영업자들이 창업과 전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와 정책을 정비해야 한다. 다섯째, 정부 주도의 일자리 창출에서 벗어나 민간 중심의 일자리 창출을 유도해야 한다. 현재 단순근로 임시직 중심의 일자리 정책에서 벗어나 안정적이고 시장지향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국내외 기업들의 투자 유치 정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 1. 국내 고용 부진 심화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경제의 고용률이 정체되어 있고 취업구조가 악화되고 있음
  - 최근 국내 고용 시장은 낮은 고용률, 청년층의 일자리 창출력 저하, 고용의 질 악화 등 구조적 문제점을 지님
    - 실업률은 3%대로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청년 실업률은 전체 실업률의 2배 이상인 7%대 중반
    - OECD기준 고용률은 2012년 2/4분기 기준 64.2%로 OECD 평균인 65.0%를 하회, 청년층(15~29세) 취업자수는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며 고용률은 40%대에 불과
    - 특히 최근 비정규직, 파트타임 등 불안정한 일자리가 늘어 취업시간이 36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가 급증
  - 고용을 개선하고 양질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은 산업 발전과 연계되어야 함
    - 고임금, 고부가가치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각 산업의 성장률을 높이는 한편 일자리 창출 능력을 제고하는 것이 필요
- 본 보고서에서는 금융위기를 전후하여 산업별로 성장률과 일자리 창출 간의 관계를 분석하여 산업별 일자리 창출 방안을 도출

< 주요 고용지표의 추이 >

(단위 : %, 만명)

	2009	2010	2011	2012
실업률	3.6	3.7	3.4	3.3
청년층	8.1	8.0	7.6	7.6
고용률	58.6	58.7	59.1	59.4
청년층	40.5	40.3	40.5	40.6
취업자증가	-7.2	32.3	41.5	46.1
청년층	-12.7	-4.3	-3.5	-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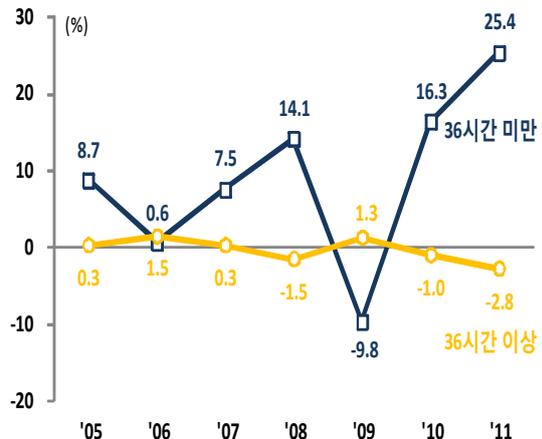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주1) 2012년은 1~10월

2) 고용률=취업자/15세 이상 인구

3) OECD고용률=취업자/15~64세 인구

< 취업시간별 취업자 증감률 >



자료 : 통계청

## 2. 산업별 성장과 일자리 창출 관계

- (분석방법) 금융위기 이후 산업별 성장과 고용 창출력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15개 산업 부문을 4가지 유형(동반성장형, 성장위주형, 일자리위주형, 동반하락형)으로 구분
  - 기간 : 금융위기를 기점으로 금융위기 이전과 이후 각각 4년을 분석대상으로 함
    - 금융위기 이전 기간은 2004년~2008년, 금융위기 이후 기간은 2008년~2012. 3/4분기까지로 정함
    - 단, 위기시 나타나는 경기적 특성을 제거하기 위해 한국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2008년 4/4분기, 2009년 1/4~2/4분기는 분석에서 제외
  - 대상 : 한국표준산업분류 대분류 기준으로 농림어업, 광업, 제조업, 전기가스 수도업, 건설업, 10개 서비스업 등 총 15개 부문을 대상으로 분석
  - 산업 유형 분류 : 금융위기 전후 산업의 평균 성장률과 취업자 증감률을 기준으로 산업 유형을 분류
    - 금융위기 이전 기간은 성장률 4.7%, 취업자 증감률 1.2%를 기준, 금융위기 이후 기간은 성장률 4.2%, 취업자 증감률 1.4%를 기준
    - ① 성장과 고용이 평균 이상이면 동반성장형, ② 성장은 평균 이상이나 고용이 평균 이하면 성장위주형, ③ 성장은 평균 이하지만 고용이 평균 이상이면 일자리위주형, ④ 성장과 고용이 평균 이하면 동반하락형으로 정의

< 산업 유형 분류 >

		산업 성장률	
		평균 이하 (일자리위주형)	평균 이상 (동반성장형)
취업자	평균 이상	- 산업 성장률 : 평균 이하 - 취업자 증감률 : 평균 이상	- 산업 성장률 : 평균 이상 - 취업자 증감률 : 평균 이상
	평균 이하	- 산업 성장률 : 평균 이하 - 취업자 증감률 : 평균 이하	- 산업 성장률 : 평균 이상 - 취업자 증감률 : 평균 이하

1) 개관

○ (금융위기 이후 산업 유형 변화) 동반성장형은 감소한 반면, 동반하락형이 급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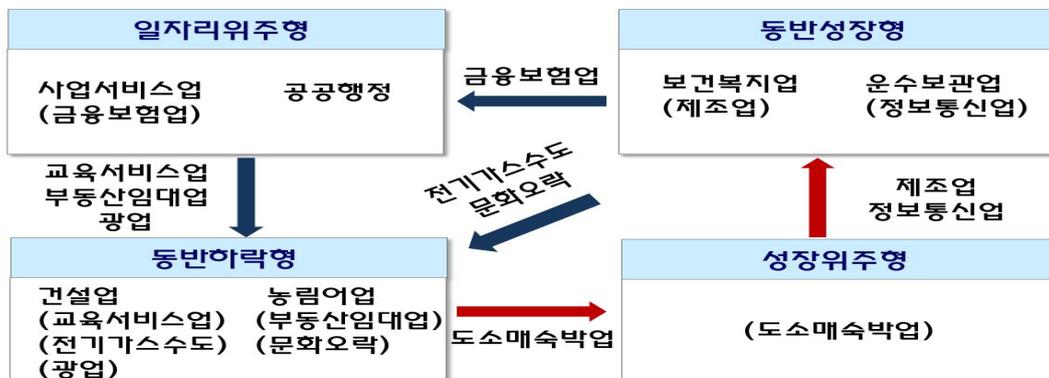
- 금융위기 이전 : 동반성장형과 일자리위주형이 각각 5개로 가장 높은 비중
  - 금융보험업, 보건복지업, 전기가스수도 등 산업이 동반성장형에 위치, 도소매숙박, 건설업, 농림어업 등은 동반하락형에 위치
  - 제조업과 정보통신업은 산업 성장에 비해 고용이 부진한 성장위주형에 위치
  - 교육서비스, 부동산임대업, 사업서비스 등은 일자리 창출에 비해 산업 성장이 부진한 일자리위주형에 위치

< 금융위기 이전 산업 유형 >

<b>일자리위주형</b>	<b>동반성장형</b>
교육서비스업      부동산임대업 사업서비스업      공공행정 광업	금융보험업      보건복지업 전기가스수도      운수보관업 문화오락
<b>동반하락형</b>	<b>성장위주형</b>
도소매숙박업 농림어업 건설업	제조업 정보통신업

- 금융위기 이후 : 금융위기 이후 동반성장형은 5개에서 4개로 감소한 반면, 동반하락형은 3개에서 7개로 급증
  - 정보통신, 제조업 등은 일자리 창출력이 개선되어 동반성장형 산업으로 이동, 교육서비스업, 부동산임대업 등은 고용 위축으로 동반하락형으로 이동
  - 도소매숙박업은 일자리 창출력은 저조하였으나, 성장률이 높아져 성장위주형으로 이동
  - 금융보험업은 성장성이 크게 약화되어 일자리 위주형으로 이동

< 금융위기 이후 산업 유형 변화 >



주1) 화살표는 금융위기 이전('04~'08년)에서 이후('08~'12년)로의 산업 유형 이동  
 2) 괄호안은 금융위기 이후 새로 이동해온 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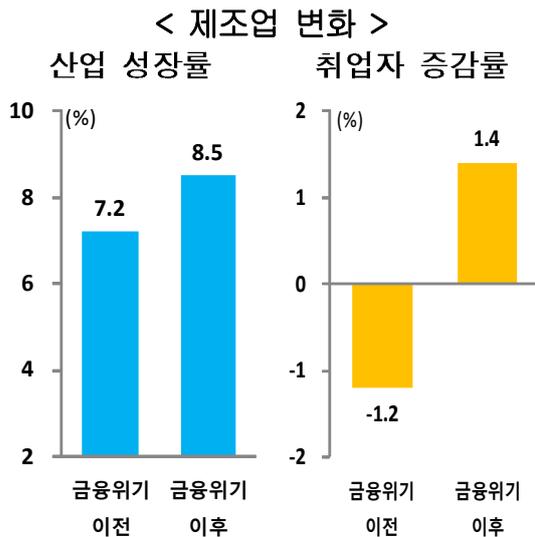
2) 유형별 변화

(1) 동반성장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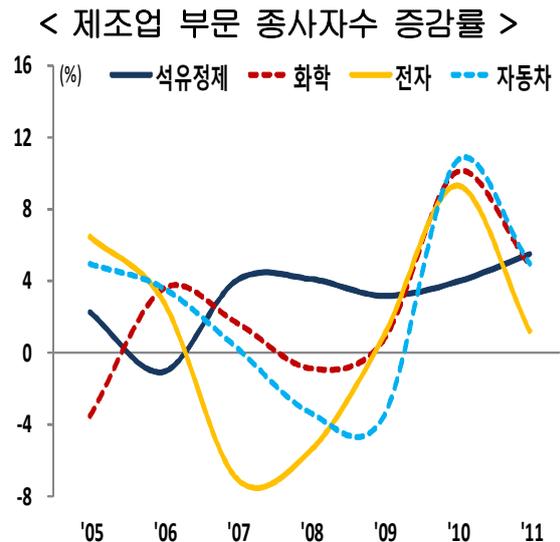
□ 제조업, 정보통신업 등은 일자리 창출력 개선으로 성장위주형에서 동반성장형으로 이동, 보건복지업은 전산업 중 일자리가 가장 빠르게 증가

○ 제조업 : 성장위주형(금융위기 이전)→동반성장형(금융위기 이후)

- 금융위기 이후 제조업은 전산업중 생산이 가장 빠르게 증가, 취업자 증감률은 금융위기 이전에 비해 크게 개선
  - 평균 산업 성장률은 금융위기 이전 7.2%에서 금융위기 이후 8.5%로 1.3%p 증가하며 전산업 중 가장 높은 성장세를 기록
  - 평균 취업자 증감률은 금융위기 이전 -1.2%에서 금융위기 이후 1.4%로 2.6%p 증가
- 제조업은 자동차, 화학, 석유정제, 전자 산업 등의 수출 호조로 생산과 고용이 크게 개선
  - 자동차 산업은 품질 및 브랜드 가치의 제고와 FTA 발효 등으로 북미시장 등에 수출이 크게 증가
  - 석유정제 및 화학산업은 국제원유가 상승에 따른 나프타 가격의 상승, 일본 대지진에 따른 공급불안 및 제품가격 상승 등으로 생산이 크게 증가
  - 전자산업은 스마트폰, 태블릿PC 등 첨단 IT 제품의 수요가 늘어 생산과 고용이 증가



자료 : 한국은행, 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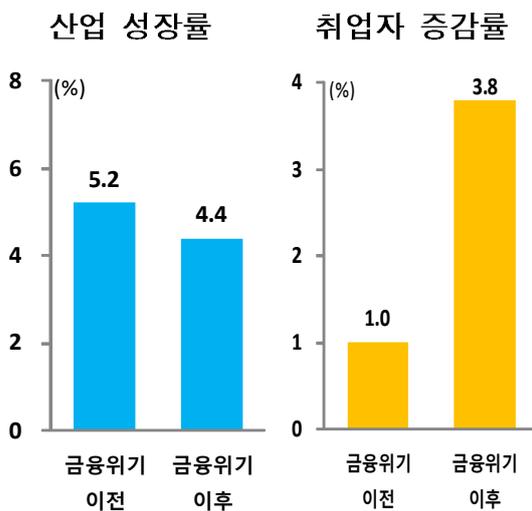


자료 : 광업·제조업조사, 통계청  
 주 : 종사자수는 10인 이상의 사업체를 대상으로 함

○ 정보통신업 : 성장위주형(금융위기 이전)→동반성장형(금융위기 이후)

- 금융위기 이후 정보통신업은 성장률이 금융위기 이전에 비해 소폭 감소하였으나, 취업자 증감률은 크게 개선
  - 평균 산업 성장률은 금융위기 이전 5.2%에서 금융위기 이후 4.4%로 -0.8%p 소폭 감소 했으나 산업 평균 성장률인 4.2%를 상회
  - 평균 취업자 증감률은 금융위기 이전 1.0%에서 금융위기 이후 3.8%로 2.8%p 증가
- 신기술의 확산, 인터넷의 급속한 성장 등이 정보통신업의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
  - 스마트폰, 스마트TV의 확산으로 IPTV, 유무선컨텐츠의 시장규모가 증가하여 방송통신융합서비스가 빠르게 성장
  - 부가통신서비스시장은 보편화된 인터넷 활용, 전자상거래의 활성화, 고속 네트워크에 대한 지속적인 수요 증가 등으로 지속적인 성장

< 정보통신업 변화 >



자료 : 한국은행, 통계청

< 통신서비스 매출액 추이 >

(자료 : 조원 %)

	2009	2010	2011
서비스	51.0 (4.7)	52.7 (3.4)	54.6 (3.6)
유선통신	17.5 (-3.3)	16.6 (-5.0)	16.2 (-2.1)
무선통신	19.6 (6.7)	20.3 (3.9)	20.4 (0.6)
회선설비 및 임대	1.8 (-17.9)	1.3 (-28.4)	1.3 (0.1)
부가통신	4.8 (17.1)	5.5 (13.9)	6.1 (12.3)
방송통신 융합	7.4 (22.2)	9.1 (22.8)	10.5 (15.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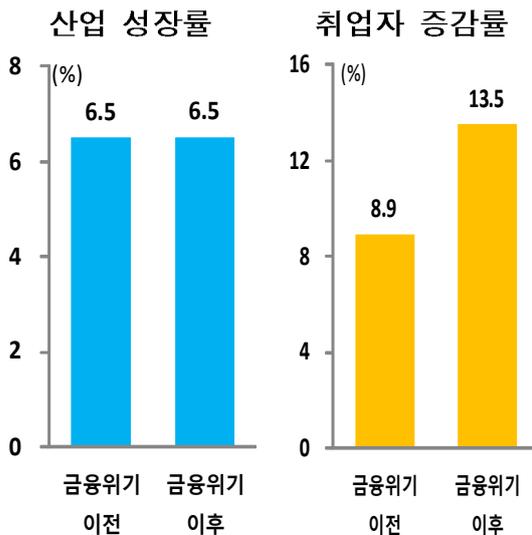
자료 : 방송통신위원회

- 주1) 괄호 안은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 주2) 2011년은 잠정치

○ 보건복지업 : 동반성장형(금융위기 이전)→동반성장형(금융위기 이후)

- 금융위기 이후 보건복지업은 취업자가 전산업 중 가장 빠르게 증가하였고, 성장률도 견조한 증가세를 유지
  - 평균 산업 성장률은 금융위기 이후 6.5%로 금융위기 이전과 동일
  - 평균 취업자 증감률은 금융위기 이전 8.9%에서 금융위기 이후 13.5%로 4.6%p 증가하며 전산업 중 가장 높은 증가세를 기록
-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확대, 정부의 육아·보육 지원 확대, 고령화 사회의 진전 등으로 생산과 취업자가 빠르게 증가
  -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확대에 따른 가사서비스 수요 증가, 정부의 육아 보육 지원 확대 등 정책적 지원으로 보건·복지 분야의 인력 수요가 꾸준히 확대
  - 고령화 사회의 진전, 저출산에 따른 가족 구성원 수 감소 등 인구구조의 변화 역시 인력 수요 증가의 원인
  - 정부 총지출 중 복지지출 비중도 2009년 26.2%에서 2012년 28.2%로 증가하며 보건·복지업의 성장을 뒷받침

< 보건복지업 변화 >



자료 : 한국은행, 통계청

< 여성의 보건복지업 고용 >



자료 : 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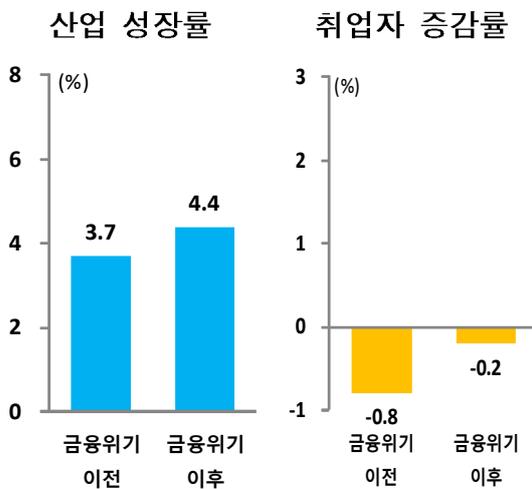
(2) 성장위주형

□ 도소매숙박업은 고용이 소폭이나마 개선 되었으나 산업평균 보다 낮은 반면, 성장성은 크게 개선되어 동반하락형에서 성장위주형으로 이동

○ 도소매숙박업 : 동반하락형(금융위기 이전)→성장위주형(금융위기 이후)

- 금융위기 이후 도소매숙박업은 성장률이 금융위기 이전에 비해 개선되었지만, 취업자는 여전히 감소세를 지속
  - 평균 산업 성장률은 금융위기 이전 3.7%에서 금융위기 이후 4.4%로 0.7%p 증가
  - 평균 취업자 증감률은 금융위기 이전 -0.8%에서 금융위기 이후 -0.2%로 0.6%p 증가
- 도소매숙박업은 업종의 대형화, 새로운 사업 출현 등으로 성장성이 개선, 고용은 재래시장 등 소규모 상점들이 축소되며 감소세가 지속
  - 도소매업은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등 대형화를 통한 규모의 경제를 확보함으로써 수익성이 개선
  - 인터넷 쇼핑물, TV홈쇼핑 등 전자상거래의 확산 역시 도소매업의 생산성 증가 원인으로 작용
  - 하지만 대형마트와 전자상거래의 확산은 재래상권의 약화, 영세 자영업자의 퇴출 증가로 이어져 재래매점의 취업자가 감소하는 추세

< 도소매·음식숙박업 변화 >



자료 : 한국은행, 통계청

< 소매업태별 고용 추이 >

(단위 : 천명)

	'07	'08	'09	'10
소매업	1,505	1,498	1,522	1,514
백화점	18	19	18	18
대형마트	56	71	70	60
슈퍼마켓	56	64	69	69
편의점	46	53	60	69
무점포판매	189	186	190	190
재래매점	1,139	1,104	1,114	1,108

자료 : 전국사업체조사, 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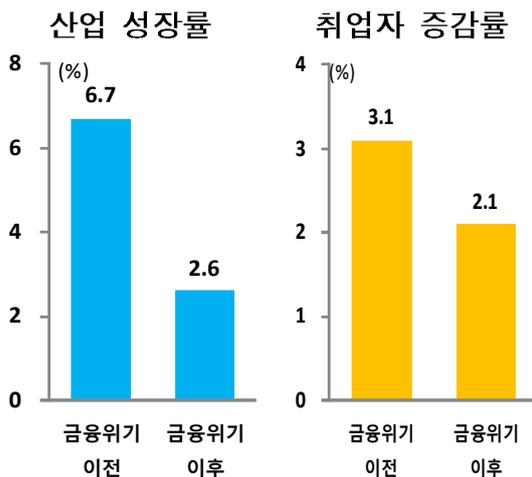
(3) 일자리위주형

□ 금융보험업은 수익성 감소로 동반성장형에서 일자리위주형으로 이동, 사업 서비스업과 공공행정은 지속적으로 일자리위주형에 위치

○ 금융보험업 : 동반성장형(금융위기 이전)→일자리위주형(금융위기 이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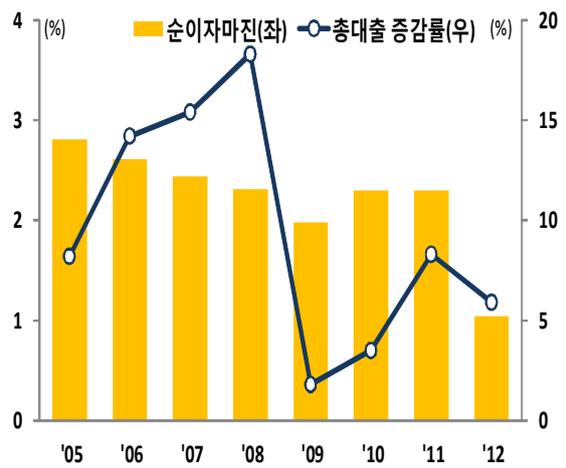
- 금융위기 이후 금융보험업은 성장률이 금융위기 이전에 비해 크게 감소, 취업자 증감률 역시 증가폭이 둔화
  - 평균 산업 성장률은 금융위기 이전 6.7%에서 금융위기 이후 2.6%로 -4.1%p 감소
  - 평균 취업자 증감률은 금융위기 이전 3.1%에서 금융위기 이후 2.1%로 -1.0%p 감소
- 금융위기 이후 금융기관들은 저금리 기조 지속, 거래량 감소 등으로 낮은 성장성을 보임
  - 은행업은 금융위기 이후 금리 하락으로 순이자마진<sup>1)</sup>이 감소하고 총대출의 성장세가 둔화되며 수익 기반이 약화
  - 증권업은 금융위기 이후 주식 거래량 감소 등으로 수익성이 저하되며 자기 자본순이익률(ROE)이 급감
  - 보험업은 금융위기 이후 저금리 기조의 장기화, 고령화 시대 등으로 자산운용에 어려움을 겪음

< 금융보험업 변화 >



자료 : 한국은행, 통계청

< 국내은행 순이자마진 및 총대출 추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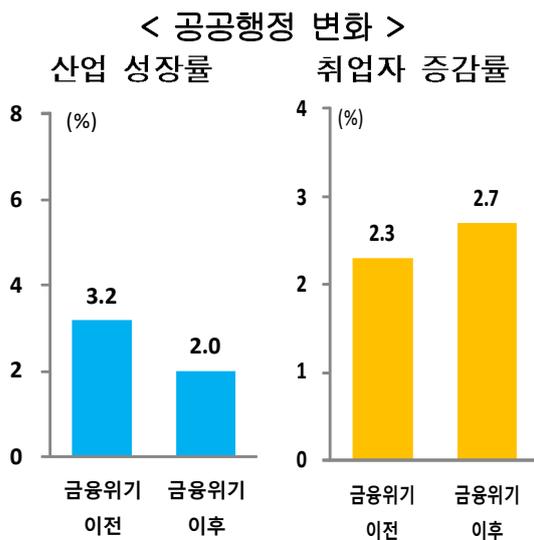
자료 : 금융감독원

주 : 연말 기준, 2012년은 2/4분기 기준

1) 순이자마진이란 은행 등 금융기관이 자산을 운용해 낸 수익에서 조달비용을 차감한 후 운용자산 총액으로 나눈 수치

○ 공공행정 : 일자리위주형(금융위기 이전)→일자리위주형(금융위기 이후)

- 금융위기 이후 공공행정은 성장률이 금융위기 이전에 비해 크게 감소한 반면, 취업자 증감률은 증가폭이 확대
  - 평균 산업 성장률은 금융위기 이전 3.2%에서 금융위기 이후 2.0%로 -1.2%p 감소
  - 평균 취업자 증감률은 금융위기 이전 2.3%에서 금융위기 이후 2.7%로 0.4%p 증가
- 정부의 희망 근로 사업 추진으로 취업자 수는 증가하였으나, 희망근로 사업으로 생긴 일자리가 저임금, 단순 업무에 집중되어 성장으로 연결되지 못함
  - 정부는 경기침체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에게 한시적으로 일자리를 제공하는 희망 근로 사업을 시행
  - 희망 근로 사업으로 2009년에 공공행정·국방 분야의 취업자가 전년동기대비 22.8% 급증
  - 하지만 희망 근로 사업으로 생긴 일자리가 대부분 저임금 단순 업무에 집중되어 성장으로 연결되지 못함



자료 : 한국은행, 통계청

**< 희망 근로 사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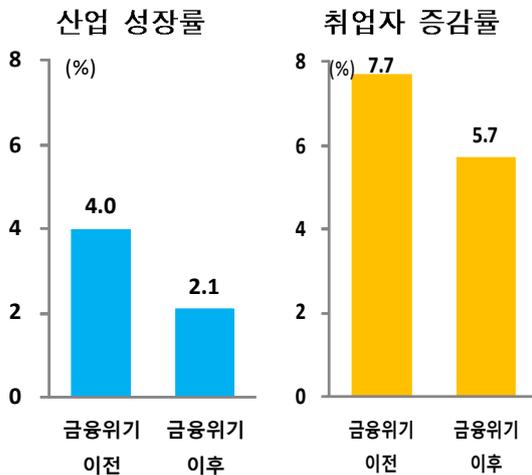
	'09년 사업	'10년 사업
사업 목적	복지대책 차원	실업대책 차원
사업 규모	25만 명	10만 명
예산 규모	1조 7,070억 원	5,727억 원
사업 기간	6개월 ('09.6월~11월)	4개월 ('10. 3월~6월)

자료 : 기획재정부

○ 사업서비스업 : 일자리위주형(금융위기 이전)→일자리위주형(금융위기 이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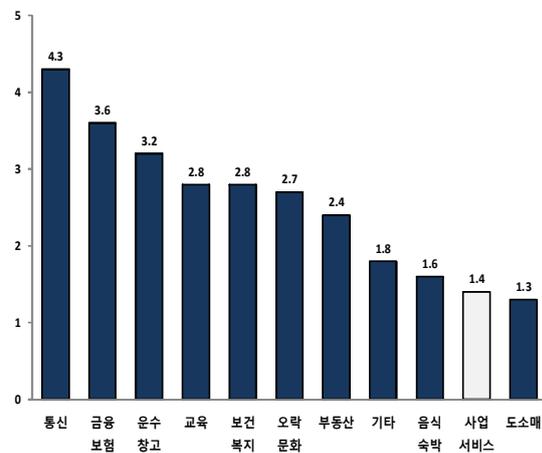
- 금융위기 이후 사업서비스업은 성장률이 금융위기 이전에 비해 크게 감소, 취업자는 여전히 높은 증가세를 보였으나 증가폭은 둔화
  - 평균 산업 성장률은 금융위기 이전 4.0%에서 금융위기 이후 2.1%로 -1.9%p 감소
  - 평균 취업자 증감률은 금융위기 이전 7.7%에서 금융위기 이후 5.7%로 -2.0%p 감소 했으나 평균 증가율 상회
- 제조업 발달로 인한 수요 확대, 낮은 진입장벽 등으로 취업자는 꾸준히 늘었지만, 고용이 저임금 부문에 집중되어 성장성 증가는 미흡
  - 제조업의 발달 등으로 생산과정의 중간재로 활용되는 사업서비스업의 수요가 확대
  - 사업서비스의 진입장벽 지수는 1.4로 도소매업 다음으로 진입장벽이 낮아 창업과 취업이 비교적 용이
  - 하지만 사업서비스업의 고용이 청소, 용역 등 저임금 부문에 집중되어 고용 확대가 산업의 성장성 증가로 연결되지 못함

< 사업서비스업 변화 >



자료 : 한국은행, 통계청

< 업종별 진입장벽 지수 >



자료 : 한국은행

주 : 진입장벽 지수는 0~6의 값을 가지며 0 점은 완전개방, 6점은 정부독점을 의미

2) 사업서비스업의 노동생산성 증감률은 2009년 -0.9%, 2010년 0.5%, 2011년 1.6%  
 3) 진입장벽 지수는 각 업종에 적용되는 진입규제를 형태에 따라 다른 가중치 (정부독점 : 6, 지정 : 5, 허가면허 : 4, 인가승인 : 3, 등록 : 2, 신고 : 1)를 부여하고 각 업종이 해당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매출액 기준)으로 곱한 값을 취합하여 진입장벽 지수를 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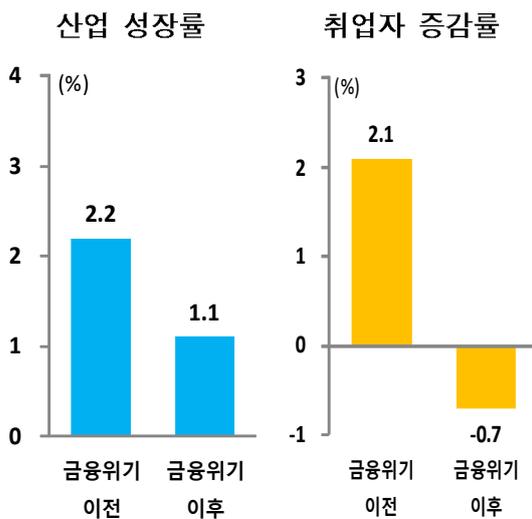
(4) 동반하락형

□ 교육서비스업과 부동산임대업은 고용 창출력이 하락하며 일자리위주형에서 동반하락형으로 이동, 건설업은 건설경기의 침체가 장기화되며 지속적으로 동반하락형에 위치

○ 부동산임대업 : 일자리위주형(금융위기 이전)→동반하락형(금융위기 이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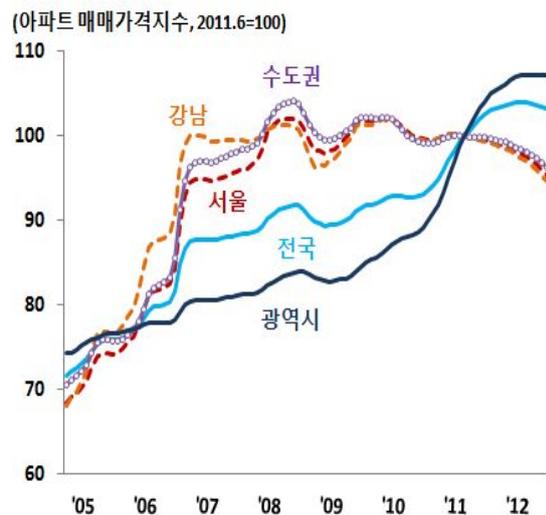
- 금융위기 이후 부동산임대업은 성장률과 취업자 증감률이 금융위기 이전에 비해 크게 하락
  - 평균 산업 성장률은 금융위기 이전 2.2%에서 금융위기 이후 1.1%로 -1.1%p 감소
  - 평균 취업자 증감률은 금융위기 이전 2.1%에서 금융위기 이후 -0.7%로 -2.8%p 감소
- 수도권 지역의 매매 가격 하락으로 부동산 거래가 감소하여 성장과 고용이 동반 침체
  - 수도권의 주택시장은 거래량이 감소하고 아파트매매가격도 하락세로 전환되어 주택매매시장의 침체가 장기화
  - 부동산 공급·입주 물량 감소로 주택매매 거래량이 감소하며 부동산 및 임대업의 성장성이 저하되고 취업자 증감률도 하락

< 부동산·임대업 변화 >



자료 : 한국은행, 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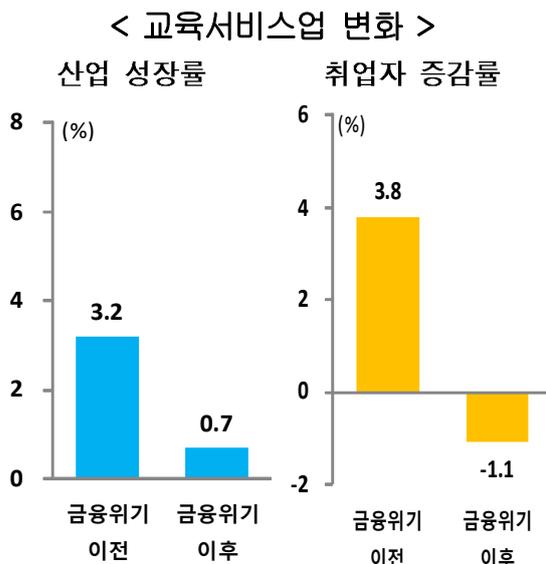
< 아파트 매매 가격지수 >



자료 : 국민은행

○ 교육서비스업 : 일자리위주형(금융위기 이전)→동반하락형(금융위기 이후)

- 금융위기 이후 교육서비스업은 금융위기 이전에 비해 성장률과 취업자 증감률이 큰 폭으로 하락
  - 평균 산업 성장률은 금융위기 이전 3.2%에서 금융위기 이후 0.7%로 -2.5%p 감소
  - 평균 취업자 증감률은 금융위기 이전 3.8%에서 금융위기 이후 -1.1%로 -4.9%p 감소
- 정부의 사교육 억제 정책, 가구의 실질소득 감소, 취학 연령대의 감소 등으로 성장률과 고용 창출력이 하락
  - 최근 정부의 사교육 억제 정책<sup>4)</sup>과 가구의 실질소득 감소 등으로 가구의 교육비 지출 증감률이 감소
  - 교육서비스업의 주된 수요자인 초·중·고 연령대 인구수는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임
  - 성장률에 비해 높은 취업자 증가를 보이던 교육서비스업의 고용도 동반하락으로 전환



자료 : 한국은행, 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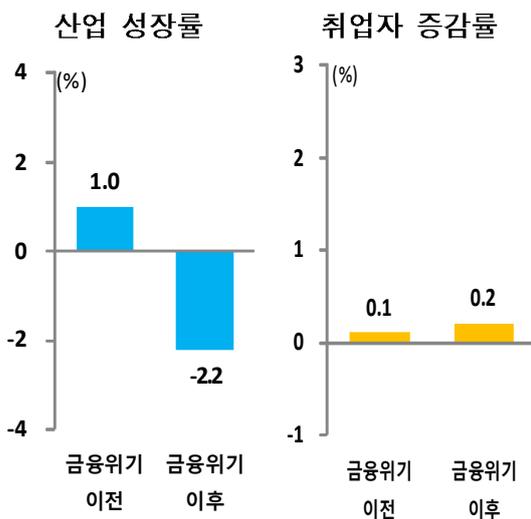
자료 : 가계동향조사, 통계청

4) 교육과학기술부의 사교육비 조사에 따르면 총 사교육비는 2009년 21.6조, 2010년 20.9조, 2011년 20.1조로 지속적으로 감소세

○ 건설업 : 동반하락형(금융위기 이전)→동반하락형(금융위기 이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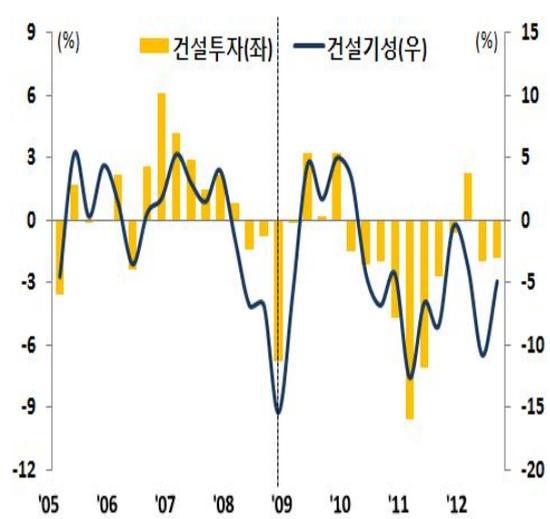
- 건설업은 금융위기 이후 성장이 크게 위축, 고용 창출력은 여전히 미약
  - 평균 산업 성장률은 금융위기 이전 1.0%에서 금융위기 이후 -2.2%로 -3.2%p 감소
  - 평균 취업자 증감률은 금융위기 이전 0.1%에서 금융위기 이후 0.2%로 0.1%p 증가
- 금융위기 이후 정부의 SOC 예산축소로 인한 토목부문 위축과 건축 부문 침체 장기화로 성장률이 크게 하락
  - 건설경기를 나타내는 건설투자와 건설기성이 금융위기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세를 보이는 등 전반적으로 건설경기가 장기침체
  - 국가 전체의 SOC 예산은 2009년 25.3조원에서 2010년 25.1조원, 2011년 24.4조원, 2012년 23.1조원으로 지속적인 감소세
  - 토목·건축의 동반부진과 이로 인한 건설사들의 연쇄부실화로 취업유발효과<sup>5)</sup>가 큰 건설업의 고용 창출력이 여전히 미약

< 건설업 변화 >



자료 : 한국은행, 통계청

< 건설투자, 건설기성 증감률 추이 >



자료 : 한국은행, 통계청  
주 : 전년동기대비

5) 취업유발효과는 건설업 16.8명/10억 원, 전산업 13.9명/10억 원, 제조업9.2명/10억 원

### 3. 정책적 시사점

-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산업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주도한 제조업과 정보통신업에 정책적 지원을 확대하고, 금융위기 이후 부진한 업종들에 성장 활력을 마련

첫째, 제조업과 정보통신업 부문의 일자리 창출 역량과 성장 지속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확대

- 제조업, 정보통신업 분야의 창업지원 확대, 성장 잠재력을 보유한 기업의 발굴과 육성, 신산업 분야의 창업촉진 지원 등에 주력해야 함

둘째, 사업서비스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추진

- 정부가 종사자들에게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대형화, 고도화를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 마련

셋째, 건설업, 부동산임대업 등의 성장 활력을 마련

- 건설 경기 회복을 위해 에너지 절약형 및 친환경 기술개발, 해외시장 개척 등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기 위해 노력

넷째, 도소매숙박업의 일자리 창출 능력을 제고

- 도소매숙박업 중 전업희망 인력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해당분야의 기술습득 및 역량 제고를 위한 실질적인 교육훈련 프로그램 마련
- 기술경쟁력을 보유한 자영업자들이 창업과 전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와 정책을 정비

다섯째, 정부 주도의 일자리 창출에서 벗어나 민간 중심의 일자리 창출 유도

- 시장지향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국내외 기업들의 투자 유치 정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

경제연구본부 김천구 선임연구원 (2072-6211, [ck1009@hri.co.kr](mailto:ck1009@hri.co.kr))

< 부록 > 대분류 기준 한국표준산업분류

분 류	개 요
농림어업	작물재배업, 축산업, 작물재배 및 축산 복합농업, 작물재배 및 축산관련 서비스업, 수렵 및 수렵관련 서비스업이 포함
광업	지하 및 지표에서 고체, 액체 및 기체 상태의 천연광물을 채굴 채취·추출하는 산업활동
제조업	원재료에 물리적, 화학적 장용을 가하여 투입된 원재료를 성질이 다른 새로운 제품으로 전환시키는 산업활동
전기가스수도	전력의 발전 및 송·배전사업, 연료가스제조 및 배관공급사업 증기 온수 냉수 냉방공기의 생산·공급사업, 상수도 및 산업용수의 집수·정수 및 공급사업
건설업	계약 또는 자기계정에 의하여 지반조성을 위한 발파·시굴·굴착·정지 등의 지반공사, 건설용지에 각종 건물 및 구축물을 신축 및 설치, 증축·재축·개축·수리 및 보수·해체 등을 수행하는 산업활동
도소매·음식숙박	구입한 각종 신상품 또는 중고품을 변형하지 않고 구매자에게 재판매하는 도매 및 소매활동, 판매상품에 대한 소유권을 갖지 않고 구매자와 판매자를 위하여 판매 또는 구매를 대리하는 상품중개, 대리 및 경매활동, 음식 및 숙박업 등이 포함
운수·보관	각종 운송시설에 의한 여객 및 화물 운송업, 창고업 및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을 수행하는 산업활동
정보통신	정보 및 문화상품을 생산하거나 공급하는 산업활동, 정보 및 문화상품을 전송하거나 공급하는 수단을 제공하는 산업활동, 통신서비스 활동 정보기술 자료 처리 및 기타 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
금융·보험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이 포함
부동산·임대업	부동산업과 조작자가 없이 각종 기계장비 및 개인 또는 가정용품을 임대하는 산업활동
사업서비스	사업시설의 청소, 방제 등을 포함한 사업시설 유지관리활동과 고용지원 서비스, 보안 서비스, 여행보조 서비스, 사무지원 서비스 등과 같은 사업운영과 관련한 밀접한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
공공행정·국방	국가 및 지방 행정기관이 일반대중에게 제공하는 공공행정, 국방, 산업 및 사회보장 행정 업무가 포함
교육서비스	교육수준에 따른 초등, 중등 및 고등 교육수준의 정규교육기관, 성인교육, 기타 교육기관 및 교육지원 서비스업이 포함
보건·복지	인간의 건강유지를 위한 각종 질환의 예방과 치료를 위한 보건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관련 서비스 기관, 자립능력에 제약을 받는 특정 범주내의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각종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주 복지시설 또는 비거주 복지시설
문화·오락	창작, 예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과 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이 포함

자료 : 통계청

주요 국내외 경제지표

□ 주요국 성장률 추이

구분	2010년					2011					2012년 연간(E)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2/4	3/4	4/4	
미국	3.0	3.9	3.7	2.5	2.3	1.7	0.4	1.3	1.8	3.0	2.2
유로 지역	1.9	0.4	1.0	0.4	0.3	1.4	0.8	0.2	0.1	-0.3	-0.4
일본	4.4	6.1	5.2	2.3	-0.6	-0.9	-6.8	-1.5	7.0	-2.3	2.2
중국	10.3	11.9	11.1	10.6	9.8	9.2	9.7	9.5	9.1	8.9	7.8

주: 1) 2012년 전망치는 IMF 2012년 10월 기준임.

2) 미국, 일본은 전기대비 연율, EU는 전기대비, 중국은 전년동기대비 기준임.

□ 국제 금융 지표

구분	2010년말	2011년		2012년		전주비	
		6월말	12월말	11월 30일	12월 6일		
해외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	3.30	3.16	1.88	1.62	1.59	-0.03%p
	엔/달러	81.19	80.66	77.66	82.14	82.42	0.28 ¥
	달러/유로	1.3350	1.4492	1.2955	1.2974	1.3071	0.0097\$
	다우존스지수(p)	11,578	12,414	12,218	13,026	13,074	48p
	닛케이지수(p)	10,229	9,817	8,455	9,446	9,545	99p
국내	국고채 3년물 금리(%)	3.38	3.76	3.34	2.84	2.83	-0.01%p
	원/달러(원)	1,134.8	1,067.7	1,151.8	1,082.9	1,083.0	0.1원
	코스피지수(p)	2,051.0	2,100.7	1,825.7	1,932.9	1,949.6	16.7p

□ 해외 원자재 가격 지표

구분	2010년말	2011년		2012년		전주비	
		6월말	12월말	11월 30일	12월 6일		
국제 유가	WTI	91.40	95.18	99.22	88.88	86.26	-2.62\$
	Dubai	88.80	106.75	104.89	108.98	106.06	-2.92\$
CRB선물지수	332.80	338.05	305.30	298.98	295.91	-3.07p	

1) CRB지수는 CRB(Commodity Research Bureau)사가 곡물, 원유, 산업용원자재, 귀금속 등의 주요 21개 주요 상품선물 가격에 동일한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하는 지수로 원자재 가격의 국제기준으로 간주됨.

□ 국내 주요 경제지표 추이

구 분		2011			2012(E)	2013(E)	
		상반기	하반기	연간			
국민계정	경제성장률 (%)	3.8	3.4	3.6	2.5	3.5	
	민간소비 (%)	2.9	1.6	2.3	1.3	2.9	
	건설투자 (%)	-7.1	-3.0	-5.0	-0.2	2.5	
	설비투자 (%)	8.9	-1.1	3.7	1.6	5.6	
대외거래	경상수지 (억 달러)	81	184	265	310	260	
	무역수지 (억 달러)	153	155	308	263	268	
	수출 (억 달러)		2,736	2,816	5,552	5,488	6,026
		(증가율, %)	23.6	14.9	19.0	-1.2	9.8
	수입 (억 달러)		2,582	2,662	5,244	5,225	5,758
		(증가율, %)	26.7	20.2	23.3	-0.4	10.2
소비자물가 (평균, %)		3.9	4.1	4.0	2.4	2.6	
실업률 (평균, %)		3.8	3.0	3.4	3.3	3.3	
원/달러 환율 (평균, 원)		1,102	1,114	1,108	1,125	1,095	

주: E(Expectation)는 전망치